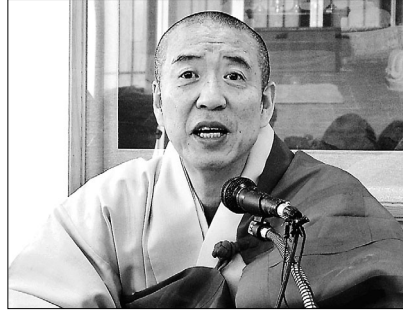


“2016년, 출가 진흥 원년으로 삼겠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웅 스님, 1월 20일 신년 기자회견



조계종 교육원이 올해를 출가 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적극적인 출가 정책을 펼친다. 학인 영불대회, 외국어 스피치 대회에 이어 토론투담대회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웅 스님(사진)은 1월 2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교육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현웅 스님이 발표한 신년계획에 따르면 교육원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출가 진흥을 위한 사업 △각급 교육기관 학점제 전면 시행 △제1회 학인토론투담대회 개최 △연수교육 내실화 등을 꼽았다.

특히 2016년을 ‘출가 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출가 홍보 사업을 펼칠 것을 밝혔다.

현웅 스님은 “청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봄, 가을 권역별로 출가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중립학교 고등학교와 전국 파라미타 연합수련회, 대불련 영부디스트 캠프 등에 출가 홍보 강연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출가 콘서트와 강연회에 참여하는 출가홍보지도부사단, 출제가를 아우르는 출가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출가 상담과 관리를 담당할 교구본사 출가지도부사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은퇴자 특수 출가’에 대해서는 “중앙종무기반 및 중앙총회의 입법추진 과정에 참여해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불시연대회, 외국어스피치대회에 이어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투담대회 눈길을 끄는 역점 사업이다. 오는 9월 예정된 제1회 학인토론투담회는 학인 스님들의 창의적 사고능력을 향상하고 올바른 불교관 정립, 전법포교 능력을 향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토론 주제는 불교 사상과 교리, 불교와 사회 관련 등이 다뤄지며, 승가대학 당 1팀씩 출전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대회가 치러질 예정이다.

현웅 스님은 “토론 대회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이는 승가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논강’을 현대화 한 것”이라면서 “논강 문화를 활성화 해 학인들로 하여금 불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타마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본교육기관과 전문교육기관에 학점제가 도입되며, 연수 교육에 신규 프로그램 10개를 신설해 운영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현웅 스님은 “신규 사업 이외에도 행사·기본·전문교육과 연구 개발사업 등 교육원의 일상적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진각 100년 향한 혁신 토대 마련할 터”

진각종 총리원장 최정정사 1월 18일 신년 간담회

“누구나 쉽게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종교, 재가자들이 불교를 쉽게 전할 수 있는 종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한해 수행자인 우리 스승들부터 내면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불교진각종 총리원장 최정 정사(사진)는 1월 18일 오후 4시 서울 성북구 총인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년사업계획에 앞서 올해의 각오를 이렇게 피력했다.

최정 정사는 “정책 지표의 핵심 골자를 요약하면 창조 정신의 재확립, 진각 100년을 향한 혁신 토대마련, 새 시대 불교와 사회가 교감하는 진각문화의 대중화입니다”라며 “특히 긍정의 사회분위기를 선도하는 유무형 문화의 완성인 ‘새진각문화’를 마련하고 이를 사회 속으로 회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중점과제 및 과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진각 100년의 구심점 마련’ ‘진각 100년을 향한 서원의 결집’ ‘진각 100년의 비전을 위한 대인연불사 추진’ ‘심인불교 정신의 문화화, 사회화 단초 마련’ 등 4가지 대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이 ‘JGO 포럼 설립(가칭)’이다. 3월 중순 발간대회를 거쳐 6월 창종절에 맞춰 모습을 드러낼 ‘JGO 포럼’은 종단의 미래 핵심사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범 종단적 기구’이다.

최정 정사는 “회원은 우선 약 50명에서 100명 선으로 계획하고 있다. 불교를 사랑하는 분들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자격이 되며, 앞으로 진각종 더 나아가서는 한국불교를 외호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시킬 것이다”며 “JGO 포럼을 통해 인적 외연을 확대하고, 퇴임스승의 사회활동 지원, 미디어사업과 같은 종단 관련 조직의 조직화 제언, 진각 생활문화 개발 보급, 종단 포교콘텐츠의 조직화 추진 등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정 정사는 “올바른 가정문화 회복을 위해 ‘가정문화연구소’를 설립하고 부·모자 복지, 조손 가정, 미혼모자 시설 설립 유도 및 신개념 노인복지 시설을 기획해 설립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정 정사는 총인원 뒤편에 진각종 창종부터 70년간 종단에 도움을 준 영가의 위패를 모시는 ‘추복전’을 운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정 정사는 “올 중반기 성역화분사



JGO 포럼, 추복전 등 설립 계획 <진각 70년사> <70대 뉴스> 발간

가 마무리 되는데로 전승원 내에 추복전을 만들어 효의 교육도량 역할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이라고 내비쳤다.

또한 ‘진각 100년’을 위한 각종 교육과 기록 콘텐츠 개발에도 나선다. 올 상반기 중 전자북 형태의 <진각 70년사>와 <진각 70대 뉴스(가칭)>를 선정 발간할 예정이다. 이어 전승원 내에 진각역사관과 육자진언 사료관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스승 및 신교도 교육강

화, 자성동이 및 청소년 지도자 육성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정 정사는 “어린이 잡지인 월간 <자성동이>를 통해 청소년 지도자 육성과 연계한 인재결집과 글로벌화를 통한 진각청소년지도자 참여 및 교육폭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진언행자 평생복지 개념의 일환으로 기로원 운영도 현실에 맞게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정 정사는 “올 9월경 전승원 불사가 마무리되면 일대를 지역의 ‘불교 랜드마크’로 키울 것입니다. 또한 외형적인 것 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신교도들을 위한 소규모 인문학 강좌부터 불교 교리 교육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 한국 불교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꿀 것이다”고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최정 정사는 종단의 등(燈)문화 위상 정립과 특성화 문화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진각종은 올해 △WFB 제 2차 총회 및 아시아불교문화페스티벌(9월 말) △3년에 걸친 한국불교문화총망 사업 첫 시행 △신인 총인 추대 및 총리원장 취임(10월 30일경) △진각국제체험관 개관(9월말)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i.com

조계종 총무원 교역직 인사 대거 단행

기획실장 해일, 재무부장 유승, 문화부장 정안 스님



해일 스님 유승 스님 정안 스님 일감 스님 성효 스님

조계종이 총무원 부실장 및 국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기획실장에 해일 스님(前 문화부장), 재무부장에 유승 스님, 문화부장에 정안 스님(前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에 일감 스님(前 기획실장), 한국 불교문화사임단장에 성효 스님(前 관음사 주지)을 임명했다.

국장 인사도 단행해 총무원 기획국장장에 도심 스님, 문화부 문화국장장에 용주 스님, 호법부 조사국장장에 인오 스님, 사서실 사서국장장에 도봉 스님, 호법부 상임감찰에 법도·지륵 스님, 사서실 수행사서에 향립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사업국장장에 현담 스님, 연등회 사무국장장에 대안 스님 등을 새로 임명했다.

노덕현 기자

“법인법 폐지 선행 입장, 변화없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2016년 신년기자회견서 밝혀

“조계종의 법인법 제정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기 때문에 해결방안은 법인법 폐지 말고는 없다. 법인법이 폐지되고, 선학원 인사·재정·운영에 대한 간섭이 없다면 이사장직도 내려놓을 수 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이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과의 갈등해결에 대한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선학원은 1월 19일 SK허브 선학원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사진>이날 이사장 법진 스님은 100인 대중공사를 통한 조계종 측의 대화제의를 거절하며, 법인관리법 폐지가 선행돼야 함을 밝혔다.

법진 스님은 “종단과 재단과의 대화의 첫 걸음은 무조건 법인관리법의 폐지”라고 말했다.선학원 측은 올해 상반기에 세납 70, 법랍 40세 이상의 비구, 비구니 30명 이내의 장로원과 정법 수호를 위한 범행단을 구성하는 등 독자행보를



장로원 범행단 구성 계획 공개 한국근대불교기념관 연내 완공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법진 스님은 “금년에도 불협화음이 계속 된다면 수계산립도 계속하고 행자교육, 승적관리도 따로 하는 등 독자적인 업무를 해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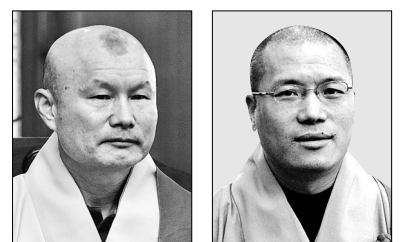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올린 한국근대불교기념관(이하 기념관) 완공 및 운영계획도 공개했다. 올해 9월

중 개관하는 기념관은 지하 4층에 지상 2층 연건평 602평의 최신식 건물로 총 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하에는 공연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다목적 홀과 세미나실, 선리연구원과 도서관 등이 들어서며, 지상에는 선학원 100년을 기념하는 전시실과 중앙선원 대법당, 시민선원 등이 들어선다. 선학원은 10월 초순 기념관 개관기념 학술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또한 해 스님 추모사업도 활발히 전개된다. 5월 중 전국청소년문예공모전을 시작으로 6월 1일 정법사 무설전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 추모학술제, 6월 18일 국립극장 ‘하늘’에서 만해 추모예술제, 6월 29일 AW컨벤션센터에서 만해 추모 다례제가 진행된다.

법진 스님은 “선학원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근본도량으로, 새로운 불교문화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념관 건립에 기대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 관음사 직대 허운 스님



진화 스님 허운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순천 송광사 주지에 진화 스님, 관음사 주지 직대행에 허운 스님을 임명했다.

송광사 신임 주지 진화 스님은 보성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했으며 봉은사 주지, 증심사 주지, 중앙총회의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을 역임했다.

제주 관음사 주지 직대행 허운 스님은 현문 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계했으며, 서봉사 주지, 신도사포교 종책특보를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신입 및 수료 과정					
모 집	교수내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 1시 ~ 7시	30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육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 1시 ~ 7시	*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시 ~ 7시	약간명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 1시 ~ 7시	*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화	오후 1시 ~ 4시	30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 ① 응시자격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불교학, 음악, 무용)
- ② 수료 및 졸업과정 :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2) 주민등록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 4부 (4)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5) 최종 학력증명서

- ③ 편입과정 :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2)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3) 주민등록본 1부 (4) 반명함판 사진 4부 (5)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6)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영산재 보존회 인정기관에서 발급된 수료증에 한함)

- ④ 전형일정 : ① 원서대 및 전형료 전체공통 : 50,000(오만)원 ② 2016년 1월 18일 ~ 2월 29일

- ⑤ 합격지표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⑥ 특 전 : (1) 재학생 중 4년 과정을 졸업시 종단에서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수계산립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함 (2) 출가 승려로서 법계 미품수 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직법계 응시자격 부여 (3) 4년 과정의 수료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을 부여한다. (4)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 부여 및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을 부여하고 각종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⑦ 입학문의 :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